

네악 스마썬 라온아띠. 이야기.

(라온아띠 봉사단원 이야기.)



캠팀 6월 활동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 6월 8일 이후 중학교수업 없음 (시험 및방학)					⊖ 휴일(어린이날) ⊖ 나래, 정민, 하늘은 프놈쿨렌 /성희, 경서는 파이린 여행	⊖ 한글학교
3	4	5	6	7	8	9
⊖ 예배 ⊖ 말레이팀과 저녁식사 (대박집)	⊖ 쥘크니어유치원 (합동 미술) ⊖ 회의 후 350ppm 캠페인 준비 ⊖ 쌀라아띠	⊖ 말레이팀 다일 방문 ⊖ 350ppm 캠페인 (친환경 세제 만들기)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프놈유치원 (공놀이) ⊖ 회의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크메르어 수업	⊖ 프놈중학교 ⊖ 쌀라아띠 ⊖ 영사님과의 저녁식사 (경복궁)	⊖ 한글학교
10	11	12	13	14	15	16
⊖ 예배 ⊖ 아나 간사님 입국 공항 마중 ⊖ 아나간사님과 점심식사 (본가) 및 커피한잔	⊖ 쥘크니어유치원 (인형극 및 후속활동) ⊖ 쌀라아띠 ⊖ 중간평가 보고 ⊖ 다일식구 및 아나간사님과 저녁식사(뷔페) ⊖ 아나간사님 숙소에서 대화나누기	⊖ 도서관프로그램 (환경송, 각종게임) ⊖ 스텝한국어 ⊖ 쌀라아띠 ⊖ 크메르어 수업 ⊖ 아나간사님과 저녁식사 (뷔페) 후 공항 배웅	⊖ 프놈 유치원 (인형극 및 후속 활동)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크메르어 수업	⊖ 쌀라아띠 ⊖ 부원장님과 대화 ⊖ 비자트립 준비	⊖ 한글학교 ⊖ 비자트립(방콕)
17	18	19	20	21	22	23
⊖ 비자트립(방콕)	⊖ 휴일 (여왕탄신일) ⊖ Come back home	⊖ 도서관프로그램 (환경송, 방과 방 사이) ⊖ 쌀라아띠 ⊖ 크메르어 수업	⊖ 프놈유치원 (합동미술) ⊖ 스텝한국어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크메르어 수업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한글학교
24	25	26	27	28	29	30
	⊖ 쥘크니어유치원 (환경송, 수건돌리기) ⊖ 쌀라아띠 ⊖ KT&G 대학생 봉사단 입국 공항 마중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환경 송 첫 시행 ⊖ 프놈유치원 (환경송, 수건돌리기) ⊖ 크메르어 수업	⊖ 쌀라아띠 ⊖ 스텝한국어	⊖ KT&G 대학생 봉사단 쥘크니어 유치원수업 진행 돕기 ⊖ 쌀라아띠 ⊖ 크메르어 수업	⊖ 한글학교 ⊖ 서바라이 (인공호수) 다녀옴

보시는 순서.

먼저 중간평가와 쌀라아띠로 캄아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신 후,

350ppm캠페인과 환경 활동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아
주시고요,

끝으로 바칼로레아와 다사다난 했던
태국 여행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
습니다.



1. 중간평가

350을 한 후에 바로 우리의 아나 간사님이 말레이에서 태국으로 넘어왔다. 이번에는 KB에서도 오지 않고 아나 님 혼자서, 그것도 캄보디아에 생애 처음으로, 방문해주셨다.^^ KB가 오지 않아 조금은(?) 자유로운 중간평가가 될 것 같아 안심도 되었지만 이미 중간평가가 끝난 팀들의 이야기 - 새벽까지의 개인면담과 조금은 진지한 아나님 -를 듣고 조금은 긴장했지요.

6월 10일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아띠와 2기 아띠였던 가영쌤과 함께 모두 공항으로 마중을. 드디어 모습을 보인 아나님. 악! 머리가! 변했다!



아나님은 2기 아띠 출신이며 지금은 코이카로 함께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가영 쌤이 살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래서 자연스레 아띠 모임이 되었다. 저녁은 부원장님과 함께 먹기로 약속되어 있어 우리는 그전에 남은 시간에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첫날은 끝!

다일에는 처음 방문하신 아나 님은 이 곳 저 곳 많이 돌아다니고 아띠가 하는 활동들을 모니터링(?) 하셨다. 경서단원이 직접 라운딩하며 자~알~ 구석구석~. 오후 4시에 드디어 중간평가 시작.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스텝들이 모여 주셨다. 그만큼 아띠에게 애정이 많다는 증거이겠죠!? ^^



아나 님이 다일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먼저 아나 님의 ‘라운아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다음으로 우리의 발표가! 발표는! 경상도 녀자! 노아! 중간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 설명보다는 항상 그랬듯 우리가 서로 나누었던 피드백을 중심으로 발표하자고 했고 이번에도 각 사업과 일상의 소감과 느낌을 위주로 발표를 했다.



(개인발표는 마지막 개인생각에 넣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아나 님의 “이렇게 솔직하게 발표하는 건 처음 봤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은 기분은 좋았다! ^^ 다른 팀과는 달리 한국어로 발표를 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무튼 우리 아띠들도 최대한 솔직 하려고 했던 중간평가임에는 틀림없었다. 그래서 아쉬움은 없었다.





끝이 나고 가족들과 모두 아나 님이 “쏘는” 뷔페에서 저녁을 먹고 아띠는 아나 님 방에 가서 2차를 가졌다. 아나 님은 “이제 고민 그만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살라” 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너무 진지하게 살았나? 하고 생각했다. 아무튼 겁먹었던 것과 달리 아나님의 많은 칭찬 덕분에! 우리는 으쌰 으쌰!!

다음날 오전만 다일에 오시고 아나 님은 앙코르 왓으로! 저녁에 아띠에게 저녁을 사주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중간평가 2박 3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참 신기하다. 우리를 보러 이렇게 손수 찾아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하고 있음이.

<중간평가 후>

중요한 것은 평가 이후! 어떻게 더욱 으쌰 으쌰 이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아띠는 중간평가 이후 - 너무 많이 내려놓은 탓인지 -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고난과도 같은 일상이 잠깐 지속되었다. 우리의 생각은 단지 중간평가 이후 많은 일이 터졌을 뿐인데 그것을 “중간평가”와 인과관계 맺으려는 것이 싫었다. 무튼! 지금은 다시 잘 살고있어요 ~~~ ^^

2. 쌀라아띠 (아띠 학교)

지난 4월 아이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시작 된 쌀라아띠도 어느덧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일주일에 2번씩 열리는 소수 정예의 수업 속에서 우리에게 쌀라아띠는 프놈끄라운 아이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창이었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활동이다. 4월과 5월에는 각 반의 아이들이 꾸준히 출석을 하였고, 끊임없이 “뽕 리은~(배우고 싶어요!)” 을 외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과연 이 인기가 6월에도 지속되었을까?



우선 나래가 운영하는 클로이(리코더)수업은 13명에서 4명의 인원으로 줄어들었다. 이 친구들도 직접 배우러 센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인원은 줄었지만 방문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단순한 수업 이상의 교감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노아의 껌누(미술반)반도 초반에 비해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도서관 2층으로 장소를 옮겨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과 함께 앉아 수업방식의 전환을 통해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같이 알아가며 즐기는 즐거움.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 두 반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어반과 K-POP반은 학생들의 꾸준한 출석률을 자랑할 정도로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쌀라아띠. 하지만 우리 각자의 자유 속에서 진행되는 쌀라아띠는 오롯이 라온아띠의 큰 프로그램의 일환임에도 다일에 소속되어 있다는이유로 수업의 사소한 사항까지 간섭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이제 정말 남은 한 달,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쌀라아띠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K-POP, 한국어, 껌누, 클로이 모두 쑥쑥!



3. 350ppm 캠페인.

350ppm 캠페인이란?

지구의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까지 내려야 한다는 의미로 전 세계 188개국이 함께 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방지 캠페인



(Ecc3:11)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its time.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yet they cannot fathom what God has done from beginning to end.

아띠와 350 캠페인.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에 맞춰 아띠는 빵퍼에서 도넛을 튀기고 남은 기름을 활용하여 폐기름 재활용 비누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 했으나, 비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 가성 소다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아이들에게 350캠페인에 대해 설명해준 후 현재 진행 중인 아띠 품퐁(친환경 품퐁)을 함께 만들고, 3일 후 완성 된 품퐁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띠 품퐁 제작 과정.

- 쌀 뜬 물을 받는다.
- 쌀 뜬 물 1L에 소금 15g과 설탕 30g을 넣어 섞어 준다.
- 3~5일간의 발효 후 소량의 품퐁을 넣어 흔들어 준다.

캠페인 활동 후.

- 우리 캵 아띠들이 350ppm 프로그램을 아이들과 함께 성공적인 마칠 수 있었던 데에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품퐁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해주신 다일 스텝 분들의 도움이 컸었다. 하지만, 그러한 스텝 분들의 도움에 비하여 우리 아띠들이 사전에 350캠페인이나 환경의 날 당일 진행할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텝 분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상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 아띠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 스텝 분들과의 상호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깨닫고 반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띠와 스텝 분들이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에 처음 예상과 달리 배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지만, 역시 답은 아이들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다. 함께 어울리는 즐거움. 350캠페인 또한 아이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활동에 대한 즐거움이었고, 그러한 즐거움이 아띠와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350캠페인이 끝난 한편, 우리들에게는 환경의 날 하루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350캠페인 실천이 약해지는 기분이 들었으며,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대화 속에서 사소한 곳에서의 350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4. 환경 송, 친환경 세제

풍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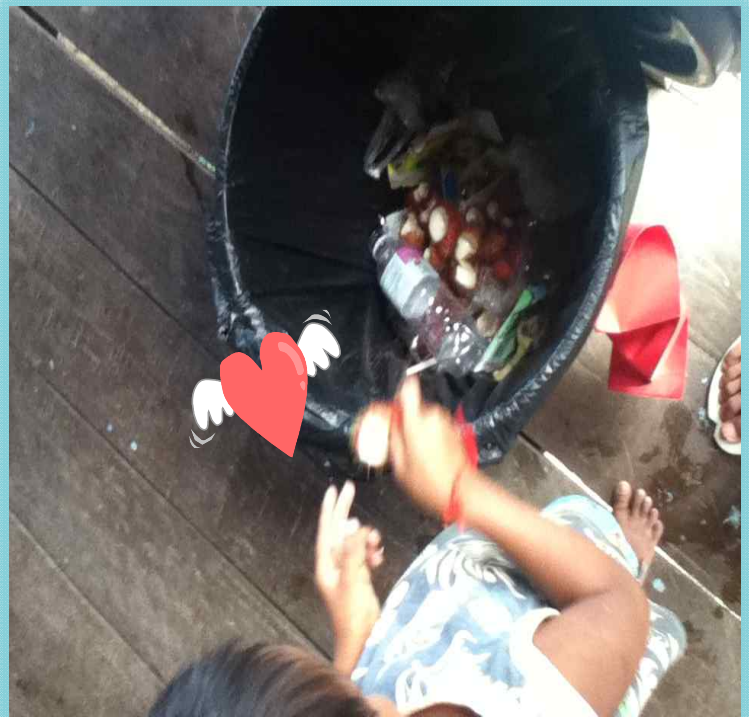
진행 상황 첫 쌀 뜬 물만으로 그 때 그 때 만들어서 밥퍼에서 설거지할 때마다 사용
개선점 발효로 인한 향기롭지 않은 냄새, 약한 세정력, 미끄럽지 않음(진밥 나올 때 잘 안 닦임)
해결 방안 이후의 기수가 EM발효액을 가져와 엄청난 세정력을 자랑하는 친환경 세제를 만들지도
모른다는 기대 현재는 풍풍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대체

환경송

진행 상황 밥퍼에서 6월 27일(수) 처음 시행 후 매일 공연하고 있으나 따라하는 아이들은 아직
별로 없음



←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외형 조건을 갖춘 아띠
통쌈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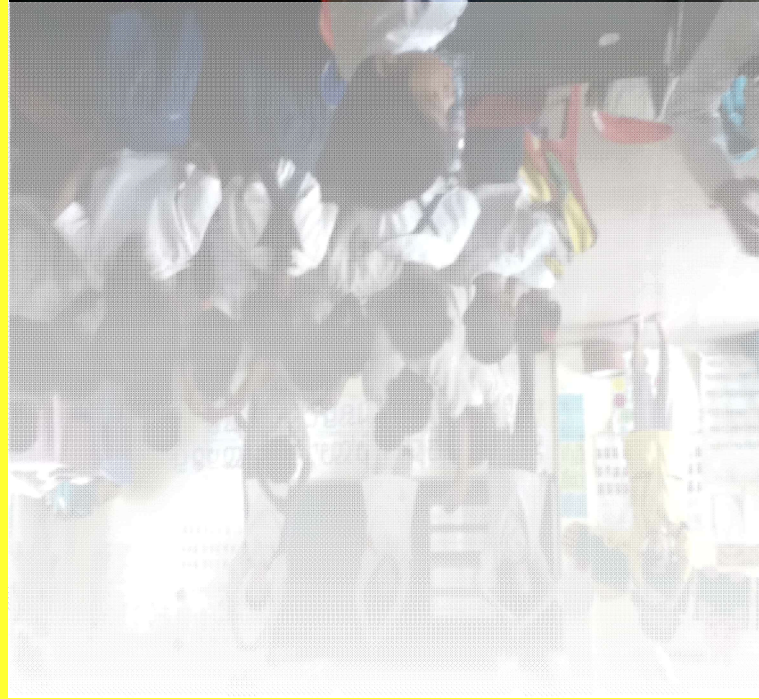


↑ 어떤 것을 버리고, 버리지
않아야 할지 고민 했으나
식판에서 떨어지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함!

도서관 및 유치원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시작할 때나 시간 날 때마다 BGM을 틀고 율동!

♫ 크눔 벳 짜올 썸머리어 무어이.
미은반야!
크눔 벳 짜올 탐 نوم빵 무어이.
미은반야! ♫

♫ 킴노 썸므람 클리이찌어 크마오잇
짹 크메잉
프러으 따엣 짜올 썸므람 크농 톡!
엇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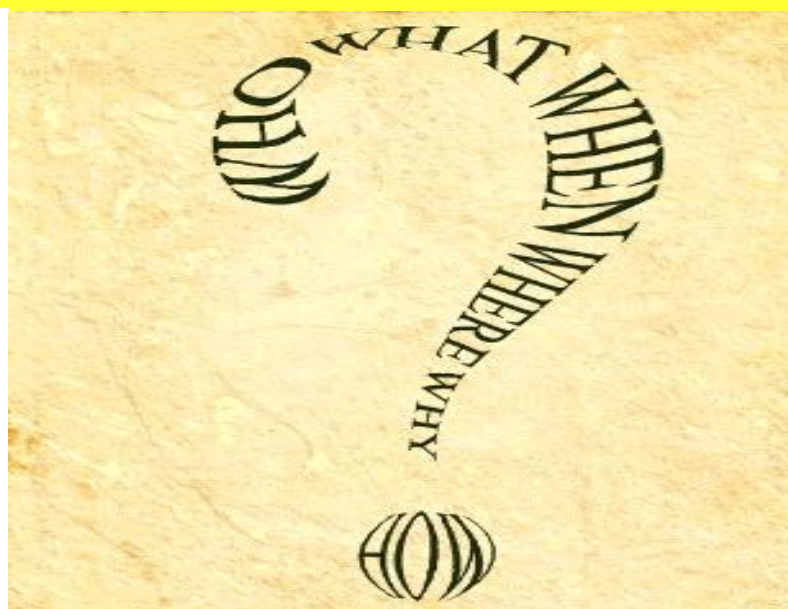
느낀점 지금 환경송은 크메르어의 발음에 잘 맞추어 다시 수정을 좀 보았다. 밥퍼에서 우리의 율동에 맞춰 노래를 해주는 분생이 이상하다고 지적했을 때 우리는 그제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잘 따라하지 못하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너무 한국식으로 개사를 했던 것! 정말 짧고 간단한 노래에서도 문화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앞으로의 방향 밥퍼에서 아이들이 잘 따라 부르는 찬송가는 무려 4년에 걸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후 기수가 이어가 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매일 밥퍼와 도서관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다일의 현지 스탬들이나 현지 아이들과도 함께 해 우리가 떠난 후에도 밥퍼에 아띠 통썸람이 자연스레 놓여지길 바란다.

5. 바칼로레아

2012년 6월 우리의 첫 바칼로레아 주제는 '기독교'였다.

아무래도 기독교 기반인 다일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있고 우리 캠프 내에서도 기독교인과 비 기독교인이 있었기에 다양한 시각 그리고 열린 시각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으나.. 오늘도 심도 깊게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다.



A : 불교는 전통적 느낌이라면 기독교는 세련된 느낌이다. 나는 진화론을 부정한다. 기독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절대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소수라는 말이 인정이 될까?'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된 사건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기독교 중에서 일부가 그랬다!'하는 식의 말이 맞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다일 예배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 내 기도의 대상은 예수님은 아니다. 다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 뿐이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 것일뿐이다.

B : 기독교는 정치적이다. 난 기독교지만 기독교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다
내가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고싶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인으로써 존경하고 그 행적들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성찰같다. 종교는 감성이다. 보수적인 기독교가 사회 문제들과 많이 부딪힌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을 지지해주는 등 약한자를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들도 있다.

C : 성경을 읽었을 때 좋은 것이 있다.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가끔 간다. 기독교적인 것이 베이스지만 청년들의 진보와 희망에 대한 내용이라서 좋다. 기독교인 친구 중에 혼전순결을 지키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한다. 기독교 서점에 갔을 때 종교가 악세사리 같이 팔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종교는 자유다. 나는 일요일은 쉬고싶다. 그래서 다일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강압적인 것, 주위에서 이래저래 이야기 하는 것 싫다.

D: 나는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른다. 헌금에 대한 비판적이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사인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내겐 어색하다. 주일예배 때 카페집 어르신분들도 참석하시라고 모셔오는데 이 분들도 종교가 있기에 모시는것이 맞나?하는 의문이다. 힘들때 기도 한다. 기독교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 말고 이젠 이성적인 것도 알고 싶다

E :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싸잡아 욕먹는 것이 싫다.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고 이미 기독교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기독교를 방어하는 말로만 들릴까 걱정했다. 기독교는 개인의 집합이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100이면 100. 개인의 믿음이나 믿는 방식은 다르다. 나는 큰교회에 대해 회의적이다. 덩치가 크면 부패는 생기기 마련. 집사님이 되고자, 권사님이 되고자 돈을 뿌리는 사람들. 이건 종교가 아니다. 시작은 작은교회에서부터!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만큼 비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똑같은 색안경으로 보지말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분별하여 비판하길 바란다

2012년 7월 2일 우리의 두 번째 주제는.

청춘&젊음/ 소개하고 싶은 책/ 내가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를 던지게된 이유에 대해 A는 지금이 청춘이니까 젊었을때 젊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고싶은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한다^^



A : 청춘이란 장애물이없다는 것. 내 20살 시절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내가 하고픈 것을 다 하다 놀고 여행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물이 생겼다. 동아리, 봉사활동 같은 것이 의무같고 하나의 품토같다. 스펙은 미래에 대한 투자의 목적. 경험이 쌓여서 스펙이 될 수도 안 될수도 있다. 스펙이 안 되도 무슨경험을 했냐가 중요하다. 어른 봉사자들의 굳어진 마인드는 유연할 때 만들어진 것. 즉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자아정체성에 집중하는 것. 지금은 이해관계에 속하지도 않고 가장 쉽고 유연한 때이다. 나는 산이 좋다. 산은 올라가면서 보이는 것이 다르다.밖이 좋고 소수로 만나는 것이 좋다. 팀플보다는 개인플이 좋다. 책읽는 것 좋아한다. 군대에서 많이 읽고 나왔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 같이 책을 많이 읽었다. 진지한 성격이나 생각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 책의 영향이다. 노래는 인디 락 외국노래 클럽음악이다. 토론을 좋아하고 가을을 좋아한다.

☆ 책소개 : 연금술사 -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본다

B :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경험하는 여행. 비용이들더라도 해외로 가보자. 사랑도 해야 한다. 특히 성을 알아야 한다. 10대엔 교육을 받았다면 20대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책임감이 없는 것이 싫다. 그리고 여자가 비하되는 사회적 성 시각이 싫다.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감추고 있는 것 같다. 대학교 친구는 진짜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20대에도 초중고 친구처럼 감정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하다. 나는 농구가 좋다. 이번이 못 일어나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이지요. 나보다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기면 즐겁다. 야구보는 것 좋아한다. 사람 보는 것도 좋다. 변하는 모습. 처음 말한 것과 나중에 말하는 것이 다르거나 하는 것. 노래는 부르는 것 좋아하고 반전 광고 카피 좋아한다. 술자리 좋아한다

☆ 책소개 : 섹슈얼리티강의 - 성에대한 사회적 지식

C : 청춘은 책임. 사는게 팍팍하다. 자취하면서 서울에서 사는 것 힘들다. 미친짓을 하는 것이 청춘이다. 학사경고. 청춘의 시간은 압축적이고 많은 일이 일어난다. 일년이 다르다. 그냥 훌쩍 떠나 보고 싶을 때 떠난다. 나는 영화보는 것 좋다. 인기따라 가서 보는 거 좋아하지만 꽃혀서 가는 경우도 많다. If only. 연극보고 뮤지컬 좋아한다. 다시보고 또 보는것도 좋아한다. 드라마는 영화와 달리 디테일 한 것을 볼수있어 좋다. 일드는 소재의 다양성 때문에 미드는 스케일이 크다. 음악은 장르안 가리고 술자리 사람 많은거 적은거 다 좋다.

☆ 책소개 : 냉정과 열정사이 - 사랑은 타이밍이다

D : 청춘. 대학가서 벼락치기식의 공부를 한 것 같다.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지만 난 그러지 못했다. 자신의 방향을 알고 깊이 있는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 학문보다 시험을 위한 공부 싫다. 빨리 졸업해라 취업해라라고 말하는 교수님.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맞다. 어떠한 경로로든 사회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걷는 것이 좋고 열음 좋다. 혼자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 트로트와 개그를 좋아한다. 프랑스문학을 공부하고 싶다.

☆ 책소개 : 앵무새 죽이기 - 명작이다

E : 청춘은 아직 많은 것에 얽매이지 않은 시기다. 아직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지 않아, 쉽게 '다시'를 외칠 수 있다. 나를 책임지기 위해(그러한 준비를 위해) 타인들에 대한 무책임이 더 많은 시기. 내게 청춘의 시기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깨보는 시도를 하면서부터이다. 내 주장에 자신이 생기고 남 앞에서 거리낌없이 춤을 추는 나는 청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리더. 많은 리더들이 내게 교훈을 준다. 최신기기들과 비오는 날 좋다. 엄마가 우산들고 기다리던 그 모습이 좋아서. 교회가족이 좋고 언어공부 그리고 노래부르고 춤추길 좋아한다. 시제가 좋고 컴퓨터 에러고치는 것 좋아한다. 고칠때마다 희열을 느낌. 책은 여행, 사진, 언어, 자기개발, 연예인책 좋아함. 그리고 사진찍고 편집하고 글쓰기 너무 좋아함. 사진은 한장만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사실을 왜곡할 수도있다. 나는 사람을 힐링하는데 내 사진을 도구로 삼고싶다. 조선희작가님 좋아함.

☆ 책소개 : 배두나의 런던놀이, 도쿄놀이, 서울놀이 - 필름카메라와 셀카의 매력이란!

바칼로레아를 한지 약 4 개월 차. 한 주제 한 주제가 넘어 갈때마다 5인의 캄아띠가 나누는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이 서로의 시야를 넓히고 사고의 깊이를 더 깊게 그리고 탄탄히 한다. 고로 가는 날까지 우리의 이야기는 꼭 계속된다!

6. 태국 여행기 (비자 트립)

여행 기간 6월 16일(토) ~ 18일(월) (2박 3일)

여행 일정

1일 째



한글학교 수업을 마치고 2시에 출발하여 4시에 도착한 태국 국경(포이펏).

출국심사가 오래 걸리기로 유명한데 다행히 1시간 조금 넘어 통과!



태국에 갔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는 **바나나 로띠**.

저
녁
8
시
반
경
방
콕
도
착!



우리의 이틀 밤을 책임져줄 숙소는 바로.



디디엠? 도익크니어(갈다.) **동.대.문**



에어컨 빵빵한 태국 택시타고 기뻐하는 4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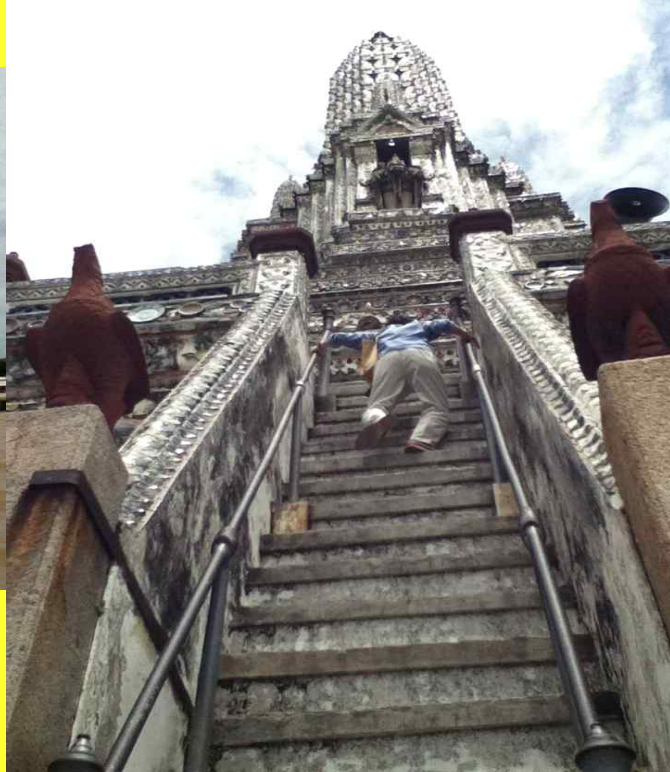
태국에선 절대 빠지지 않고 간다는 **왕궁**에서.



↑
← 옷은 이렇게!!! →
↓



왕궁에서는 옷차림이 중요한데, 일단 무릎보이는 반바지 안 됩니다. 레깅스도 안 됩니다. 목이 파인 옷도 안 됩니다. 팔이 다 드러나는 옷도 안 됩니다. 주의 하세요^^



방콕의 명물인 수상 택시를 타고,
75m의 높이를 자랑하는 왓 아룬 정상까지!

다시 4인의 시점으로 돌아와 와불상이 있는 왓포부터 차이나 타운까지!



왓포 가는 길에 문이 닫혔으니 왓 아룬을 가라는
수상한 아저씨를 조심하시길!



차이나 타운.↓



차
이
나
타
운
←

그리고 '방콕에서 이서방 찾기'

수 많은 차들과 사람들 속 어딘가에 우리의 이서방(성희)이.. 두 시간 만에 극적으로 상봉ㅠㅠ



극적으로 만난 우리들은 주말마다 엄청난 규모로 들어서는 태국의 명물 **짜뚜짝 주말 시장**으로!



늦은 오후, 남자 들과 여자 셋은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 지상철을 마지막으로 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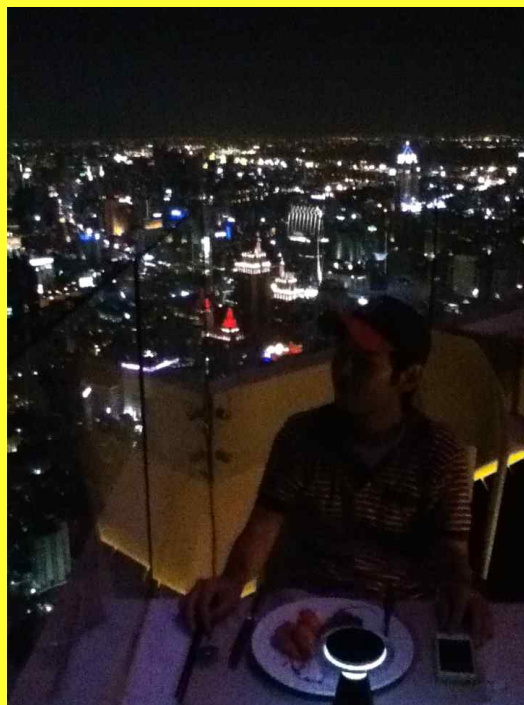


먼저, 여자 셋은 유명한 트랜스젠더쇼인,

칼림소쇼를.



남자 들은 바이옥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3일 째

아침 7시에 숙소 앞에서 미니밴을 타고 포이펫 도착.

빠른 입국 수속을 마치고 국경에서 점심식사.

택시를 타고 오후 4시경에 툭목 탐타운 도착!

여행을 준비하면서...

중간평가 이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된 비자 트립은 부원장님의 허락부터 한글학교를 빠지는 문제까지 모든 것이 급했고 진행하는 사항 하나 하나가 힘들고 어려웠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가려 하나고 만류할 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았다. 부원장님이라는 실질적인 리더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라온 아띠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왔지만 다일의 소속된 사람들로서 행동해야 함을 알았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조르기 식의 전달방법도 매우 잘못된 것임을 반성했다. 부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목적의식과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의 책임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태국을 다녀와서...

이전에 이미 방콕을 방문한 적 있던 성희는 다른 곳을 더 보기 위해 반나절 정도 따로 움직였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한 짜뚜짝 주말 시장 근처에서 그야말로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를 하게 되었다. 서로 힘들고 지친 극한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생각들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었다. 2시간 만에 극적으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구나 싶었다.

그리고 태국에 가서 우리가 평소에 캄보디아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성희를 찾아야 하는 급한 상황에서는 안되던 영어도 술술 나오긴 했지만 무엇인가를 물어보거나 말하고 싶을 때는 영어보다 한국어와 크메르어가 먼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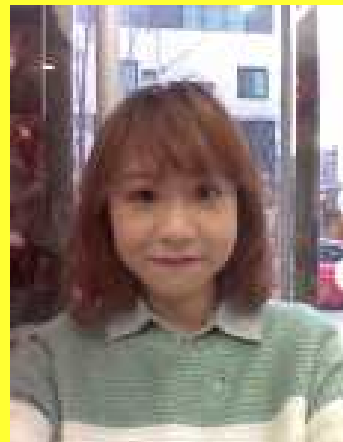
또한 달러를 쓸 수 있는 캄보디아와 달리 바트만 사용가능하고 동전까지 있는 태국에서 돈 계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바트에서 달러를 생각하려니 헷갈리기가 일쑤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의 비자 트립.
하루 속성 관광으로 둘러보기엔 볼 것이 너무 많았던 태국.
그래도 이 멋진 곳을 다녀오지 못했다면 우리는 **후회**했을지도.

7. 중간평가 에세이 + 개인생각.

하늘 개인에세이

중간평가를 기점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얻고자 했던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담아가자던. 세달 정도 생활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진짜 시작인 것 같다. 나는 5월에 들어서서야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쌀라아띠를 하는 아이들의 집도 최근에 방문하게 되었고 어디의 누가 누구의 형제, 자매이고 누구의 딸이고 집안의 사소한 일들이라든가 경조사 등 사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안 되었다.



외국인으로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이곳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일에 이질감이라는 장벽을 만든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얼마나 이곳과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5개월이란 기간이 내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짧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얻어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최선임을 깨달았다.

내가 이곳에서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교육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어. 수학 과외를 많이 해보긴 했지만 언어를 가르치는 것과는 천지차이임을 알았고 교육은 내 적성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쯤은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중간이 조금 넘은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있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리학도로서 아이들의 수준에서 재미있고 신기해할만한 내용들도 많았는데 이용을 못한 것 같아 아쉽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국내 훈련에서 교육에 대한 훈련을 받을 때 수업 내용에 대한 기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어 교육을 받은 직후 이곳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니 수업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어 교육 중에서 가장 애먹고 있는 프놈프라움 중학교 수업. 부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사정인데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드는 생각은 바로 인수인계이다. 저번 기수와 상의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도 세달이 지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고 다른 것을 시도해보려고 하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았다. 고민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진데, 같은 고민을 반복할 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고민은 쓸데없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할 때에는 일에 대한 것보다 어떤 고민을 계속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미리 고민해보고 다른 것을 시도해보고 또 새로운 고민들을 다음 기수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발전적인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아나 간사님께서 중간평가 이전에 캄보디아는 어떤 곳이냐는 가벼운 질문을 던지셨다. 어쨌서인지 나는 쉽사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하기가 어려웠다. 한국에서는 길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너무 생소한데 이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천진난만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다 쓴 도마를 썰매처럼 타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집에 갈 일이 걱정인 나에 비해 그 비를 맞으며 좋아하고, 수돗가에서 다

벗고 물장난하며 놀고, 클리닉 앞 물이 뿌려진 미끄러운 타일 바닥에서 뒹굴며 노는 이들에게는 어떤 것이든 놀이가 되고 즐거움이 된다. 그 즐거움이 나에게도 전해져 행복하다. 또 햇볕에 잘 그을려 윤기 나는 피부에 하얗고 큰 눈을 데굴데굴 굴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말랐어도 살이 탄탄해서 맞으면 꽤 아프지만.

이런 아이들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캄보디아는 나에게 그런 곳이다.

이번에 동영상 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사진에 음악 넣고 대충 만들려고 했으나 점점 욕심이 났다. 사진을 보고 정리하면서 덩고 짜증났던 때도 있었지만 웃고 즐거웠던 사소한 일상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막 다루고 싶지 않았기에.

아...나는 그동안 정말 행복했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더 소중히 해야겠다.

PS. 하늘 개인생각

중간 평가를 받고 비자 트립을 다녀왔던 6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했던 때였던 것 같다.

다함께 움직이기 위해 계획을 짜고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를 전달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직 안에서 일을 진행할 때, 조심성과 적극성의 적당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간평가 이후 드는 생각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가 나는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서로 싸우고 못된 짓을 해도,

현지 사람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웃어 넘겼다.

외국인으로 이곳에 온 나는 내가 그동안 한국에서 보는 외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대로 친절병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이방인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유리창 너머 이곳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절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어리석은 욕심과 내가 어디까지 이곳 사람들에게 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두 달이 넘게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구별할 수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 항상 좋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싸우고 웃고 화해하면서 정이 쌓이듯.

요즘 나는 아이들과, 이곳 사람들과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비록 상대방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밥퍼와 빵퍼를 하고, 유치원 수업을 하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하고, 쌀라아띠를 하고. 이런 일상들이 언제까지고 반복될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런 일상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후회하지 않을 날들을 살아야겠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나라 개인에세이



캄보디아에서의 지난 4개월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기 위해서일까, 6월 11일 중간평가단의 방문은 하루하루만 앞만 보고 달려 나가던 나에게 뒤를 돌아보도록 도와 준 고마운 시간이었다. 과연 나는 왜 라온아띠를 지원하였을까? 지구시민이 되고 싶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원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나는 “모두 아니다. 너무 이기적이지만 단순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해외봉사를 지원했다.” 이것이 나의 솔직한 대답이다. 이렇게 자원활동 및 나 자신에 대한 자아정체성과 꿈에 대한 정립이 없이 떠나온 캄보디아에서 생활. 처음 3월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달려들었기에 행복했지만 4월에는 슬슬 집중도가 흐려졌고, 그만큼 행복감도 떨어졌던 것 같다.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과 사침에 있어서도 ‘과연 저 친구가 내가 떠난 뒤에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줄 수 있을까? 더 욕심을 부리면 편지도 서로 주고받을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중학교 수준의 큰 친구들에게 친구가 아닌 접근을 하려하였다. 그러나 기대가 있으면 실망이 따라오는 법이다. 센터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오히려 큰 친구들보다는 너무나도 귀여운 꼬마친구들이었고, 클로이 수업을 통해 재미를 느끼는 것도 모두 꼬마 친구들이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사람을 사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통해 어떠한 것을 얻어내려는 기대를 가지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 대 인간으로의 사랑을 통해 교감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사람 대 사람을 넘어 그럼 프놈프라운 마을 속에서 비취지는 이나라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3월과 4월에는 내가 마을을 지나다닐 때 마다 “쓰안(예쁘다), 쑈어쓰다이” 라고 외쳐주는 주민들 덕에 마을을 돌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런데 5월이 되면서부터는 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단지 눈인사만 할 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처음의 분위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그러나 이건 온전히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라온아띠 국내 훈련당시 너희는 마을의 중심이 되려 하지 말고 주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대접을 즐기면서 프놈프라운의 중심인물이 되려는 큰 착각을 한 것이다. 이방인이기에 자신들과 다른 피부색에 예쁘다고 말해주고 반갑게 인사해 주었던 것이었는데... 하지만 마을 속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만큼 마을 주민들에게 나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오가다 마주치는 마을 주민으로 인식되었기에 자연스레 눈인사만 나누거나 예쁘다와 같은 기분 좋은 말은 필요 없어졌던 것이었을텐데.... 이처럼 나는 지난 4개월을 중심인물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는 또 한명의 글로벌 날라리였다.

지난 4개월 캄보디아에서의 활동을 통해 과연 나는 성장하였을까? 라온아띠의 청년상은 경계를 넘어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다 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년이라 하였다. 이러한 청년상에 나를 비추다면 아직 나는 경계를 넘기는커녕 청년도 되지 못한 청소년적 마인드에 불과할 뿐이다. 질풍노도와 혼란 속에서 자아를 찾아가려는 청소년처럼 나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갈대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중간 평가를 하고 난 이 시점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라온아띠를 통해 나는 청소년에서 벗어나 청년으로 성장하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성장통의 과정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캄보디아에서는 글로벌 날라리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놀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국내로 돌아간다면 조금은 비판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앞으로의 나를 바라 볼 수 있는 이나라가 되려 한다는 것이다.

PS. 나래 개인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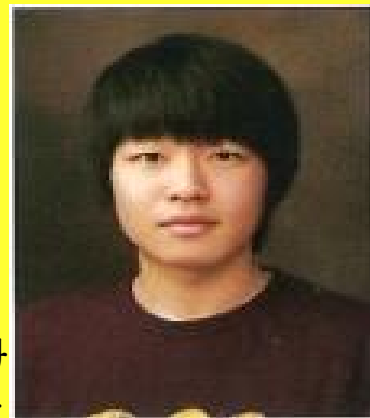
나에게 6월은 다이나믹한 한 달이었다. 이전 기수의 블로그에서 중간평가 때의 질문과 당시에 했던 고민을 올린 것이 있어 미리 읽고 겁을 먹었던 탓일까? 중간평가가 있던 6월 둘째 주는 긴장 속에서 보내서인지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런데 막상 아나 간사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활동과 생활 등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즐겨라.' 라는 아나 간사님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 후의 남은 날들은 고민보다는 편안함 속에서 더욱 더 큰 행복을 느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중간평가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나의 경우 중간평가가 단지 저는 지난 3개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보고식의 느낌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활동에 대해 냉철한 평가를 통한 꾸짖음과 더불어 진중한 조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얻고자 했던 것이 사실 나의 마음이었다. 그래도 중간평가가 끝난 6월의 후반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태국으로 우리 아띠끼리 비자트립도 다녀오고, 많은 봉사팀의 방문으로 인해 밥퍼 빵퍼보다는 쌀라아띠나 도서관에 있을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이들과 교감횟수도 증가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시간 속에 이제 내가 이곳에 남아있을 시간은 한 달.한 달 밖에 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쉽지만, 아니다! 한 달 이나 남았다고 생각을 전환하자 이나래. 남은 한 달 너의 모든 열정에 불을 태워 아시아적 청년은 아니지만 햇볕에 그을린 청년은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달려보자!



경서 개인 에세이

라운아띠 출국 당일 인천 공항. 나의 머릿속엔 이번 활동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다 오자는 다짐이 있었다. 그 후로부터 3개월 후. 지금의 나는 그때의 다짐을 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즐길 수 있는 삶이 아니다. 고민이 든다. 생각이 많아진다.

사람들. 처음 사람들을 보기 전까지 이곳 사람들은 우리를 무조건 친구라 여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그저 한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었다. 우리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싫으면 마음을 열지 않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었는데, 나는 슈퍼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두와 친구가 되기보다는 나를 친구라 생각해주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나와 대화만이라도 나누길 원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픈 마음이 크다.

교육. 중간보고 때까지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다. 선생님이란 호칭 속에 학생들을 만나고, 스텝들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어쩌면 우리가 현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게 필요하니 배워.' 라는 강압적인 교육을 해왔다는 것이다. 막상 본인들이 원하지 않던 교육인데 갑작스럽게 외국인 다섯 명이 들어 와 가르쳐줄게 배워 라고 말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면 그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들었을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활동 초기엔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 속에 한국에서 하던 교육 방식을 활용하려 했지만, 지금은 그저 내가 맡은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시간으로 수업 방식과 수업 시간의 변화를 꾀하려 한다.

다일. 우리는 라운아띠이지만, 소속은 다일공동체이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다일 공동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으며, 나 스스로에게 현재 다일 공동체는 사업적인 측면으로는 와 닿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부터 계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배사업과 전통공예 사업을 제외하면 한 번 한 번의 사업이 일회성인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이러한 느낌을 받아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다일 공동체라는 재단이 보이기보다는 그 속에서 함께 일하는 스텝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과 맺는 소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나에게 있어서의 다일 공동체이다.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생활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다. 다른 국가에 있는 단원들과도 짧게나마 대화를 나눠보면 각자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민을 힘들어하는 듯하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러한 고민은 그저 즐거운 고민이고 오히려 한국에 안고 가고픈 고민일 뿐이다. 라온아띠라는 활동을 하기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러한 시간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 하루하루가 즐거울 뿐이다. 물론 이러한 즐거움이 이 곳 캄보디아에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에 돌아가서도 나 스스로가 가능한 활동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중간보고 에세이를 마친다.

PS. 정서 개인생각

어느덧 중간 평가가 끝나고, 한국으로의 귀국이 한 달 가량 남은 시점이 왔다. 중간평가를, 또 지금까지 써왔던 보고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한국에 가는 그 날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모든 활동에서 만난 한국, 현지 스텝, 현지 아이들. 물론 우리는 각자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한 번쯤 그들을 떠올릴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아쉬움이 너무나도 크다. 남은 시간 나에게 소중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하게 여겨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성희 개인 에세이

아띠를 지원하게 되었던 이유. 대학 때부터 꿈꿔왔던 국제개발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간절함이 있었고 이 두 가지 간절함 사이에서 선택해야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진정 행복하고 잘 할 수 있을 까. 그래서 라온아띠라는 기회를 통해 국제개발 현장에 파견이 되었고 이것이 내 젊은 때에 있어 두 가지 간절함 사이의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했다. 5개월이라는 조금은 긴 시간 동안 생각 해볼 중대한 고민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캄보디아에 온지 한달도 되지 않아 선택 할 수 있었다. 그 이후의 아띠 생활은 선택에 대한 확신과 증언을 해주을 뿐이다.

다른 사람들 보다 내가 비판적 시각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여기서도 비판적 생각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판적 생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문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비판 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한 비판의 크기에 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너가 뭘 할텐데?” 물어보았을 때, 할 수 있



는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 있는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는 것도 나에게 어려울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해보자 했던 것은 관계였다. 아이들과의 관계, 스텝들과 관계, 아띠들과의 관계. 실천으로 이어 질 수 없는 비판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다.

욕심을 낼수록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국내 훈련 당시 슈퍼맨이 되지 말하는 실장님의 말에 ‘전부터 하고 있던 생각이야, 슈퍼맨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내가 현지에 오고 일을 하며 슈퍼맨이 되려고 하는 나의 욕심을 보았다. 욕심을 가지니 불만만 커지고 이들의 변화시키려는 거만심만 키워졌다. 그래서 그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했다. 하지만 욕심을 버렸을 때 찾아 왔던 깨달음은 오히려 ‘준비되지 못했던 나’에 대한 반성이었다. 준비되지 못한 나라는 것을 알기에 다시 이러한 중장기 봉사도 오지 못하겠고 나아가 국제개발에도 발을 못 넣겠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준비 되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무언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3개월을 생활해보니 아띠들 “만”의 지속가능성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1기부터의 사업이나 방향성은 같으나 이 지속성이 지역사회 (발전)지속성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아띠의 지속성에서 지역의 지속성으로 이어지는 어떤 고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다는 모두다가 말하는 간단한 사실이다. 국내에서의 여행을 기억하는가? 나아가 처음 설레임으로 나갔던 해외여행을 기억하는가? 얼마나 좋은 기억들로만 가득한가. 왜 사람들에게 여행의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는 것일까. 나의 대답은 좋은 것만 보고왔기 때문이지 싶다. 좋은 사람들, 좋은 음식, 낯선 풍경에 대한 반가움 그리고 언제 여행이 끝나는데 대한 인지. 이것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다. 씨엠립에서의 생활이 점점 생활과 일상이 되어가며, 여행이란 가면을 벗어가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사람사는 곳이 똑같다는 너무도 유치하지만 진실한 대답이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이제까지의 국제개발을 버리고 어쩌면 새로운? 국제개발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즉 한국에서의 어떠한 올바른 추구를 하는 생활 또한 국제개발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말이다.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문제, 만나고 있는 사람, 환경들은 표상만 다를 뿐 속은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욱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약자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캄보디아나 다른 3국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개발과 다르지 않겠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캄보디아에서 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국제개발이라면 내가 더욱 잘 알고 더욱 이해도가 높은 더욱 잘 할 수 있는 한국에서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 큰 행복을 주지 않을까?

제 3국에서의 국제개발을 하기 싫은, 아니면 회의에 찬 나의 합리화 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러한 대답이 맞는 것 같다. 후회는 없다. 준비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아쉬움만 있다.

PS. 성희 개인생각

한달이 남은 시점에서 참 싱숭생숭하다. 남은 이 시간동안 어디에 더욱 집중해야 할까. 나렌이란 친구와 이야기하며 “선생님도 한국가면 나 잊어 버릴꺼냐”는 말에 너도 나 잊어 버릴꺼 아냐 라며 받아쳤지만, 고민이 많다. 서로에게 그저 좋은 추억으로만 기억되는 것. 어쩌면 참 허무하다는 느낌이



든다. 5개월의 일상이 그저 “추억” 일 뿐이라니. 그리고 그 추억을 또 미화시킬 우리의 위선(?) 이 싫어졌다. 아름답던 아름답지 않던 추억이 아닌 “지금” 그리고 “이후” 로 이어가고 싶다. 이제 슬슬 이별을 준비해야지,

노아 개인 에세이

#생각의 깊이

아띠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힘있고 또렷한 자기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깊이 있는 생각임을 알았다. 짧은 시간에 단순히 형성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깊이 곱씹고 고민한 흔적이 묻어나는 액기스같은 생각이었기에 그토록 울곧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리라. 그때 이후로 나는 얕게넓게 빠르게 생각하는 습관을 지양하려 한다. 그래서 참에 와서 하게 되는 중요한 생각거리들은 단순히 흘려보내지 않고 한번 더 되새겨서 온전한 '내 생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한다. (복잡한 생각은 종이에 쓰면서 정리해보면 잘 된다) 예전에 비해 토론이나 주장을 할 때에 부담이 적다. 말을 잘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내 것이 된 생각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막힘도 없고 거짓도 없다.



#관점의 전환

림끼리 바칼로레아를 하면서부터 '다른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다. 늘 상황과 사건, 사물과 사람을 A라는 단일 시각으로 판단하고 B, C의 또다른 시각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시각이 더 맞다고 생각했고 토론을 할 때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상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었다. 하지만 한 주제에 대해 깊게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연습을 하는 바칼로레아를 통해 틀에 박힌 사고를 비틀어, 새로운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신선한가 하는 것을 느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항상 비판적시각과 오픈마인드로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사고가 말랑말랑하니 **수용력과 이해력**이 넓어졌다. 예전에는 어떤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면서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았다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한 템포를 늦추게 되는 내 모습은 본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감정적이고 제어하기 힘든 모습이 더 많지만 오늘도 나를 축복하고 내일을 기대한다.

PS. 노아 개인생각

봉사자 찌란찌란

여기 다일은 캄보디아 명소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여행 책에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들 포함하여 무튼 사람의 왕래가 너무 많다. 이제 방학이다. 그래서 각종 대학, 교회, 투어팀에서 봉사자들이 몰려온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봉사자들에 대한 내 생각은 중간평가를 하면서 한번 정리를 했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 내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또 무턱대고 아이들에게 찍어대고 들이대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살아보니, 다일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봉사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 난 주변인이니까!! 우선 많은 일손 그리고 후원,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 우리가 하던 밥퍼와 빵퍼를 대신 해주시기에 나는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할 수 없었던 큰 일들을 많은 인력들과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다양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와 만날 수 있으니 이 어찌 좋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몇몇의 봉사자들은 언제나 있다. 내가 날라리라고 칭하는 행동을 하는 미은빠냐들 때문에 가끔씩 화가 나기



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개구리 울창이 적 생각 못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오래 살지 않았으면 나도 똑같이 행동했을 테니까. '우리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여기 잠깐 봉사활동을 와서, 이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담긴 것 같다. 조금 더 안다고 건방져 지지는 말아야지. 내가 어디서 이렇게 제 발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게 웃으면서 맞아야겠다.^^

한달밖에 안 남았어 VS 한달이나 남았네

캄보디아 씨엠립 주민 4개월차. 이제 5분의1만을 남기고 있다. 딱 한달 남았다. 이 시점에서 나는 정리를 생각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루를 더 찌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가?.... 사실 두 생각이 공존하지만 후자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 뒤돌아 보니 너무 여유를 부렸다. 가보지 못한 곳, 먹지 못한 것, 하지 못한 일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다. 특히나 인간관계에 있어 "부끄럽다고, 나중에 하자"고 미룬 일들을 반성하고 매일매일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돌아가서도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다. '한달밖에 안 남은' 시간이자 '한달이나 남은'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을 더 써바이하게 보내자! 썩썩♥(요즘 환경송 반응이 좋다. 지나가는 아이들이 나를 보고 환경송을 부르면서 울음까지 해주는데~ 아이구♥♥ 어쭈쭈란!)



Good Bye Cambodia

